

전과목 A·SAT 만점자도 떨어뜨려야 하니...

■대입 에세이의 중요성

10월이 되면서 대입입시 시즌이 무르익어가고 있다. 대입 지원을 앞둔 시니어들은 대입 지원서 작성을 비롯해서 퍼스널 에세이 쓰기로 하루하루가 긴장의 연속이다. 입학사정관들은 대학 합격 여부를 결정할 때 지원자를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무엇보다도 이들이 살펴보는 성공적인 지원서는, 여러 가지 요소가 아우러져 있어 지원자의 개성을 볼 수 있고 기억에 남을 수 있으며 강력한 인상을 받을 수 있는 지원서다. 한마디로 지원서 전체가 중요하며 지원서 전체를 이루는 그 어느 한 부분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대입 에세이의 중요성

대학입학 지원서 리뷰를 하는 입학사정관들은 해마다 늘어나는 뛰어난 학생들 중에서 더욱 눈에 띄게 두드러지는 월등한 능력을 가진 학생들을 찾아내기 위해 성적 외에 에세이 등에 집중하게 된다.

지난해 하버드 대학의 지원자 수는 3만명을 초과했다. 10년 전과 비교해 보면, 하버드 대학을 지원하는 지원 학생 수는 약 1만5,000명 정도에서 두 배가 넘는 지원자수를 기록하고 있다. 가끔 명문대학을 졸업한 학부형들이 내가 학교 들어갈 때는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그냥 들어갔는데 요즘에는 왜 이렇게 야단들을 떠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도 계신다.

그 옛날 시절에야 명문대학 지원자 수가 많지 않았던 때였고 고교 성적표, 표준고사 성적과 과외활동만 보고도 충분히 뛰어난 학생들을 합격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요즘처럼 지원자 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니 입학사정 과정이 훨씬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발표에 따르면 하버드 지원자 3만명 중 전 과목 A를 받은 학생들과 뛰어난 SAT 성적을 거둔 학생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합격생 2,000여명을 가려내는 것은 이 수지들만 가지고는 불가능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아이비리그 대학 지원자들 중 70% 이상이 전 과목 A를 받고, SAT 성적 또한 각 섹션 당 700점 이상을 받는다는 것을 안다면 성적 외에 다른 분야에서 그 특별함을 보여야 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입시 에세이의 종류

많은 지원자들이 에세이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무엇을 써야 할까, 또 어떻게 써야 할까 등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사실 미국

대학 입시에서 보면 중요한 에세이 쓰기를 두 군데에서 요구한다.

그 중 하나는 SAT 시험의 한 과목인 라이팅 시험에서 써야 하는 에세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입학 지원서에서 요구하는 에세이가 있다. 대입 지원서에서 나오는 에세이는 퍼스널 에세이라고 부른다. 대학 입학 프로세스에서 두 가지의 에세이는 각각의 목적을 달리하고 있다.

- SAT 에세이의 목적

시험 치르는 시간과 장소가 정해



에세이에 자신이 누구라는 사실과 학교 발전에 어떻게 기여할 것이라는 단서를 제공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다. (뉴욕타임스)

성적 이외 차별화 기준, 개성과 특별함 보여야 입학사정관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포커스를

저 있고 시험 치르는 시간은 25분 동안 시험장에서 직접 작성을 해야 한다. SAT 시험에서의 에세이는 지원자가 대학에 입학해서 어려운 수업을 듣고 리포트를 제대로 써서 제출할 수 있을지를 가늠해 보는 시험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어떤 문제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내세워 조리 있게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서술 능력을 보는 것이다.

- 대입 지원서 에세이

하지만 대입 지원서 작성의 에세이는 지원자의 인격을 평가하고자 하는 계획적인 의도라고 본다. 고교 성적이나 표준고사 성적과 같은 수치로 알 수 없는 지원자를 한 학생으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이해하기를 기대하면서 지원자가 자신의 생각을 어떻게 정리하고, 또 스스로를 어떻게 표현하는지도 보고 싶어 하는 것이다.

사립대 지원서의 추가 에세이도

살펴보면 가장 인상 깊게 읽은 책을 묻기도 하고,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묻기도 한다. 그런데 이같은 질문에 자신의 지식 따위를 늘어놓는 것은 좋지 않다. 어떻게든 나 자신을 보여주는데 포인트를 두고 작성하라. 이 형식의 에세이는 시험을 치르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편한 시간을 이용해서 작성해서 보내게 되므로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작성할 수 있다.

■좋은 에세이를 어떻게 써야 할까?

이같이 대입 에세이는 대학에 자기 자신을 보여주기 위한 여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이고 공간이다. 고교 성적이나 표준고사 점수 그리고 과외활동을 떠나 자신의 개성, 즉 남다른 특성을 고스란히 드러낼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이다.

또 지원서의 다른 부분과는 달리 지원자 자신이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이자 자신의 사정이나 상황에 따라 알맞게 바꿀 수 있는 능력으로 융통성을 발휘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어떤 작은 사실이나 사건을 서술하는 형식으로 자신 스스로가 구성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이 공간을 잘 이용하면 지원자들 사이에서 눈에 띄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요즘 각 대학의 지원자들은 고교 성적이나 표준고사 성적 등에서 사실 거의 비슷한 실력을 갖추고 있다. 이런 비슷비슷한 지원자 군에서 눈에 띄는 에세이로 인해 합격의 영광을 차지할 수도 있기에 더욱 에세이가 중요해진 것이다.

사실 대입 에세이는 조금 특별하다. 이들의 에세이를 읽고 평가하는 입학사정관이라는 특별한 청중이 있고, 이것은 자극히 개인적인 이야기 전개이면서 이들의 마음을 흔

들어야 한다는 색다른 목표가 있다. 따라서 대입 에세이는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또 무엇에 가치를 두는지에 대해서 표현해야 한다. 특별히 자신이 학문적으로 지원하는 그 대학에 꼭 맞는 사람임을 알려야 할 것이다.

뭐니 뭐니 해도 대학의 본질은 공부이다. 따라서 대입지원서의 에세이는 지원자의 학구적인 면모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지원하는 대학에 합격한다면 그 대학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해야 하라. 에세이에 필요 없는 군더더기 표현을 피하면서 지원자의 작문 실력, 자신만의 분명한 사고력 역시 에세이를 통해 전달될 수 있으면 좋을 것이다.

대입을 앞둔 12학년 시니어들은 이제 에세이를 거의 마무리를 하고 있을 것이다. 오랜 고심 끝에 이 끌어낸 소재들을 에세이 속에 반영해서 초안을 만들어내서 이제 완성을 해가는 시점에서 마지막으로 꼭 점검해야 하는 사항들을 빼놓지 않기를 바란다.

■굿 에세이 토픽

대입 수험생들에게 에세이는 사실 부담스러운 일이다. 특히 명문대를 지원하는 경우 치열한 경쟁을 헤쳐 나가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더욱 특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일단은 남들이 써놓은 좋은 에세이를 한 번 읽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처음부터 창조는 힘들다. 모방을 거쳐서 창조를 할 수 있다. 글을 발췌해서 쓰라는 것이 아니라 스타일을 참고로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이다.

‘굿 에세이 토픽’ (www.goodessaytopics.com)이

소개하는 대입 에세이 주제를 한번 살펴본다.

- ▲신문 기고란에 글을 쓴다면, 어떤 주제로?
- ▲인터뷰하고 싶은 존경하는 인물과 그 이유
- ▲역경을 겪었던 상황과 그것이 끼친 영향
- ▲자신의 인생행로를 바꿀 수 있는 방법
- ▲본인 성격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 ▲10년 후, 20년 후 내가 갖고 있을 직업
- ▲가장 보람된 순간

이런 범주를 정해 놓고 생각한다면 토픽을 고르는 일이 한결 수월해질 것이다.

또한 하버드 대학 신문 ‘하버드 크립슨이’ 발간하는 ‘성공적인 하버드 지원 에세이’ (50 Suc-

cessful Harvard Application Essays)란 책을 읽어 도 도움이 될 듯하다. 이 책에는 에세이 토픽을 선택하는 문제에서부터 에세이 구성 및 읽는 사람에게 관심을 갖게 하는 방법, 피해야 할 함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되어 있어 명문대를 지원하는 학생이라면 추천할 만하다.

객관적인 참고자료를 리뷰한 후 최종 결정은 본인이 스스로 한다. 소재에 대해 부모나 카운슬러, 친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한 번 본인이 어떻게 글을 전개할 것이며 어떤 결론을 내릴 것인지를 브레인스토밍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조언을 받을 수 있다.



푸넷 샤마
시니어 컨설턴트
(어드미션 매스터즈)
1-855-468-2783
TheAdmissionMasters.com

9700년의 역사 민족정기

- 힘찬 내공, 명석한 두뇌
- 암, 고혈압
- 당뇨 예방 및 극복
- 극치적 건강



온라인 국선도
www.uSundo.com

~한국 고유의 정통 단전호흡
~전국 14개 대학 교과목

“... 저역시 틈날때마다 국선도를 해오고 있는데, 몸과 마음을 닦는데 정말 좋은 심신 수련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선도가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밝은 세상을 만드는데 큰 역할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박근혜대통령 새누리당 대표시 국선도기념식 축하문

BoA_1105BoA

엄마따라 국선도하고 오는길... 사람은 숨만 잘 쉬어도 잠도 잘오고 피로도 근육경직도 풀리는구나.. 저처럼 불면증에 시달리시는 분들, 적극추천합니다... :)
7월 25일

한류스타 가수 보아의 트위터 국선도 소개

- LA 본원 (버몬+월서) (213)272-6798
- 토렌스 (로미타+웨스턴) (213)272-6798
- 플러튼 (하버+커먼웰스) (714)944-1234
- 세리토스, 라팔마 (한남체인 맞은편) ... (562)547-9315